

어떤 주제의 책인가요?	소속을 선택하세요.	도서관명을 알려주세요.	이름을 알려주세요	추천하시는 책의 제목은 무엇인가	추천 책의 저자는 누구인가?	추천 책의 출판사는 어디?	책 속의 한 줄이나 감상평을 적어주세요.		
11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강원지부	뒤두르어린이도서관	김효심	열 개의 인형	이상고	사계절	인형들은 비를 맞아도 되는 새가 된 것 같아.		
11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사무국	사무국	김진희	아름답다는 건 뭘까?	사이타테 타히 (자은이), 아라	문학동네	아름다운 건 이 그림책		
11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경기남부지부	산들마을푸른숲	하연서	다크사이드	다크사이드 프로젝트	어센	항상 '모이는 사람'이 강한 건 아니다.		
11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경기북부지부	고양작은도서관	김나현	우리 집 고양이	타카하시 카즈에	천개의바람	고양이가 이불 속으로 들어온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 그날 밤에는 계속 내게 기대어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고통고통 끝끝수를 볼렀다.		
11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경기북부지부	예다움작은도서관	백정화	빨간 열매	이지은	사계절	꿈의 아슬아슬한 여정을 따라가며 응원하게 되었. 서로 서로 응원하며 보내는 계절이길.		
11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경기북부지부	작은도서관다락	김은아	사서가 된 고양이	글:권오준, 그림:경혜원	모든요일그림책	고양이 특별기획전을 준비중인 작은도서관다락에서 읽고 있는 고양이책 중 한 권입니다. 책과 이야기가 들려주기를 좋아하는 고양이 루루가 도서관에서 강들을 이겨내고 공간을 얻으며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는 과정을 따뜻한 이야기로 표현한 그림책에서 독자들이(특히, 아이들)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11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경기북부지부	작은도서관다락	김은아	누구 손이나용	PIE international	아르누보	아예 약 분사할은 있어도 한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마성의 고양이 알밤 사진집! 작은도서관다락에서 특별기획전을 준비하며 비치한 도서관, 도서관지기들과 봉사활동자들이 더 많이 볼테고 힐링과 따뜻한 너무 좋아 손에서 안 놓는 매력! 넘치는 그림(사진)책입니다!		
11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경기북부지부	탄현작은도서관	권숙현	날고 싶지 않은 새	김강산	도도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아주 멀리까지 갈 수 있어.* (책 속의 한줄)		
11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광주지부	책돌이도서관	신화숙	흔들린다	황민복 시 한성옥 그림	작가정신	흔들리지 않으려 흔들리고 흔들려 흔들리지 않으려고		
11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광주지부	책돌이도서관	신화숙	적당한 거리	전소영	달그림	(감상)적당한 거리란 대중 방편안되는 거리가 아닌 상대를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지만 상대는 눈곱만큼도 관찰당한다는 느낌을 갖지 않을만한 태도와 몸짓으로 지켜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어른의 조건 중 하나는 적당한 거리를 지킬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적당한 거리를 지켜줄때 안전감을 느끼고 마음을 내어 진정한 만남으로 이어지리라.		
11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광주지부	책돌이도서관	이정미	꽃에 미친 김군	김동성	보림	김동성 작가님의 아름다운 그림을 함께 나누고 싶어 선정엄마께도 읽어드렸어요. "꿈다.고와~"하시며 보시는 엄마를 보면서 행복했어요.		
11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사무국	사무국	김경숙	기묘야 문을 열면	김지훈	반달	전설을 글로 쓰고 그림 그릴책으로 화려한 그림과 그 속에 자기자신을 찾아가는 동물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11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서울동부지부	슈윙라움작은도서관	정정애	비에도 지지 않고	미야자와 겐지	날개달린 그림책방	모든 일에 잊속을 따지지 않고 잘보고 듣고 알고 잊지 않고		
11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서울서부지부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	백승남	할머니의 광도르	안나마리아 고치 (글), 비올레 오후의소묘		맛난 디지털 요리로 하루하루 노안의 즐거움을 유쾌하는 할머니와 할머니의 정성어린 요리를 통해 한 발 한 발 삶의 맛 속으로 빠져드는 사신. 마침내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풀 크리스마스 디지털을 완성하고, 레시피까지 남긴 다음에 사신의 입 속으로 들어간다. 할 일을 모두 마치고 안 일을 떠나는 마지막 여행. 나도 할머니처럼 삶의 끝을 미련없이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을까?		
11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울산경주지부	다들림작은도서관	박정자	꽃에 미친 김군	김동성	보림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꽃의 아름다움만은 변치 않으리		
11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울산경주지부	세린작은도서관	김숙진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	찰리 맥키시	상상의힘	"이 다음에 크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친절한 사람." 소년아 대답했어요.		
11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울산경주지부	푸른작은도서관	최영진	만약의 세계	요시타케 신스케	주니어김영사	추화도 하면서,더 나은 희망도 가질수 있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		
11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인천지부	굴죽도서관	이보영	그림책의, 힘	가와이 하야오	마고북스	그림책은 아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성인들에게도 성찰과 치유의 힘을 발휘시켜주는듯 하다		
11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인천지부	꿈나래어린이도서관	안은경	용기모자	리사 데이크스트라	책과콩나무	무서운게 많은 아이가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용기를 키워가는 이야기		
11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인천지부	늘푸른어린이도서관	예쑤	예쑤	유연경	웅진주니어	세상 일 나비효과 같은 일들이 있지요. 그렇다고 생각하거나 우울하지 않아요. 웃자구요. 쫄쫄쫄 하하하하		
11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인천지부	늘푸른어린이도서관	이영인	눈 내리는 저녁 숲가에 멈춰 서서	로버트프로스트 시,수잔제퍼드	살림어린이	눈 내리는 숲으로 초대합니다. 그림에도 머무르지 않고 가야만 하는 당신이 지켜야 할 약속은 무엇인가요?		
11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인천지부	와글와글작은도서관	구순례	이야기를 그러드립니다	김은미	온다프레스	여기는 사려고 하는게 막 있다니까. 내가 물건을 찾는건지 물건이 나를 찾는 건지		
11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인천지부	행동이도서관	이소운	농부달력	강선진	웅진주니어	도시에 사는 소바자는 한지도 알지 못하는 생선의 세계. 우리 입에 들어오는 것들이 어떤 수고와 기다림, 그리고 대자연의 베품으로 안에서 가능한것인지 소중한 그림으로 담겨 있네요. 절기마다 꺼내서 들춰봅니다		
11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인천지부	콩세알도서관	국창미	두더지의 조금 웅감한 하루	마야 다츠카와	책읽는곰	타인과 관계맺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11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인천지부	콩세알도서관	노윤주	바뀐 그림	강성은	윌파소	영화들 상상력을 발휘해 바꾸어 그리는 재치있는 그림 이야기		
11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인천지부	콩세알도서관	박한홍	너에게 꽃을 선물할게	강경수	창비	어려운 처치를 끈기를 가지고 해결하는 자제가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꽃 그림이 너무 예쁘습니다!		
11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인천지부	콩세알도서관	박한홍	날마다 멋진 하루	신시사 라일란트	초록개구리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는 누구에게나 소중한요. 하루의 일과를 잊지다고 생각하면 멋진 하루를 보낼 수 있답니다!		
11월의 주제 <지금 당신이>	충청지부	범지기마을10단지 푸른작은도서관	윤나영	안녕, 풀	샌우 글, 그림	비룡소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남극기지와 행권의 이야기로 재미있게 풀어내고 일러스트도 멋진 그림책 입니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개인회원	사무국	이은주	너무나 많은 여름이	김연수	레제	두번째 밤이 지나간 뒤, 포탄이 떨어질 때마다 우리는 생각한다. 모든 것이 산산조각날 때 세상에는 지혜가 가장 흔해진다고. 그때야말로 우리가 지혜를 모을 때라고 평범하고 흔한 그 지혜로 우리는 세상을 다시 만들 것이라고.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경기남부지부	매기동풍도서관	한은희	꿈에서 왕으로	나카자와 신이치	동아시아	이질적인 영역 사이를 자유로이 돌아다닐 수 있는 '유동적 지상'이 발생함으로써 인류는 모든 걸 '기호'가 아닌 '의미'로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울산경주지부	극동푸른작은도서관	이진영	오십이 철학을 마주할 때	안광복	다산초당	내면의 나무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나이 가장 나답게 삶의결정을 만들기로 했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울산경주지부	비발디작은도서관	정혜문				세상은 마구 흔들리대지만 절대 흔들리지 않을 당신을 사랑한다는 그 말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울산경주지부	작은여우숲도서관	김소은	창, 눈부시다	김민호	두엄	이제부터 위기라는 단어의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그대산 축복받은 환경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주제와 상관없이 현재 읽고	충청지부	해바라기작은도서관	박연우	인생우화 위키드1 (윌파바와 글린다)	류시화	연금술사	소설과 영화를 비교하며 보는 재미		